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 당 (116)	봉 헌 (217)	성 체 (152)	파 건 (118)
---------	-----------	-----------	-----------	-----------

<p>제1독서   창세 9,8-15</p> <p>화답송   시편 25(24),4-5,7,16과 7,14,8-9(◎ 10 참조)</p> <p>◎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p> <p>○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이시옵니다. ◎</p> <p>○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p> <p>○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p> <p>제2독서   1베드 3,18-22</p> <p>복음환호송   마태 4,4</p> <p>◎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p> <p>○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p> <p>복음   마르 1,12-15</p>	<p><b>성소를 위한 기도</b></p> <p>○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p> <p>●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p> <p>○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p> <p>●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p> <p>○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p> <p>●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p> <p>◎ 아멘.</p>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18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2/25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4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미사책대금
	\$181	\$	\$120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20	김 요아킴/ 고 안나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7	김 유스티노/김유스티나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2/3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2/10	김 마론/ 김 헬레나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2/17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오는 성체조배는 3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소식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3 월 11 일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00 문의: 박 바오로  
모임 날짜가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 성가책을 돌려주세요 \*\*\*\*

우리 공동체가 사용하는 성가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혹시 가정으로 가져가신 성가책이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018 년도 매일미사 책값 안내

올해 미사책값이 일년치 50 볼, 권당 5 볼 로 책정 되었습니다.

본당 재정 사정으로 미사책 값을 납부하실 수 대로 책을 주문하고 그 분에 한하여 미사책을 나눠드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경공부 - 마르코복음과 함께 (금요일 오후 7 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5,6 장을 필사하시고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문의: 유용한 형제님

\*\*\*\*사순기간 동안에는 십자가의 길 후에 하게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주일 미사 후)

오늘 부터 한동안 멈추었던 소공동체 모임을 시작합니다.

현재 구역 구분이 없으므로 재비뿔기를 하여 두 팀으로 나누어 성가와 복음을 읽고 나누며 공동체의 화합을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인 공동체 이메일 개설 sanclemente.kc@gmail.com

교우들의 새로운 소식등 공지를 원하시는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조식 봉사 3 월 13 일(화) st. Vincent de Paul center  
봉사해 주실 분들은 아침 7 시 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300 Bakers St, Bakersfield, CA 93305 문의: 이 그레이스 자매님

십자가의 길 (금요일)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이 매주금요일 마다 오후 7 시에 있습니다.

말씀의 이삭

저로서는 못 오를 바위위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지난해 9월 저는 명동대성당 갤러리 1898에서 '복촌한옥' 을 주제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복촌 한옥마을을 찾고 복촌의 아름다움에 열광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동네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어떤 철학으로 이런 동네를 개발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에 걸쳐 복촌에 한옥 단지를 일궈내신 분은 바로 저의 할아버지 정세권이십니다. 당시 일제의 압박을 물리치고 경성의 한복판에 우리의 긍지를 한옥으로 뿌리박아 놓으셨다는 점이 놀라울 뿐 아니라, 그 집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30평 내외 소규모의 실용적 한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앞서가신 애국애족의 철학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분은 한옥 건축을 통해서 일구신 부를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신간회, 조선어학회와 조선물산장려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후원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업적을 되새기며 저 또한 후손으로서 복촌 한옥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 할아버지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후손으로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절실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덜컥 전시장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전시의 준비는 덜 된 채 전시 날짜부터 못박아놓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게 두려움이 덮쳐 왔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재로 잡아 어떻게 촬영을 할지 막연하였습니다. 더구나 복촌은 수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곳인데 어떻게 남다른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

며 주님께 의탁하는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밤마다 목주기도 안에서 시편의 구절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할아버지와 문답하면서 복촌의 골목길을 헤매던 어느 날, 저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할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지붕과 하늘의 조형적 형태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고, 그것을 사진예술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1898에서의 전시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그 후 복촌 소재 갤러리 한옥에서 초대전을 여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그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셨던 저의 할아버지 정세권 요아킴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손녀의 노력을 흐뭇하게 받아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금육제? 금육재?

금육(육식을 피하는 관습)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만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재(齋)를 지킴으로 절약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